

---

# 범부처 요소수 수급 대응 1개월 대응 내용

---

2021. 12. 7

관 계 부 처 합 동

## I. 요소수 수급 사태 초기를 돌아보며

□ 정부는 요소수 수급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.

- 중국의 요소에 대한 수출전 검사조치 시행으로 중국으로부터 요소 수급이 지연되면서 요소수 수급 불안이 발생하였고 국민 불편이 초래
- 특히, 요소 수급 문제가 차량용 요소 부족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물류대란과 경제적 혼란까지 확대될 우려

□ 요소수 수급 불안은 국제적 분업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던 위기요인이 현실화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

- 그간 우리 경제는 그동안 국제적 분업구조(Global Value Chain)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제조업 산업경쟁력을 확보
  - 투입비용 절감과 적기 생산(Just-In-Time)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국제 경쟁력을 결정
- 2년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등 관련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
- 그러나, 원재료 가격 상승, 주요국 통상 갈등 및 정책변화 등이 중첩되며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 발생
  - 또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요소 수급이 차질을 빚게 되자 생산·유통이 불안해지고 파급효과가 확대

## II. 시장 안정을 위한 그간의 정책대응

### 1. “신속하게”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.

#### □ 정부 부처와 기업이 힘을 합쳐 대응하였습니다.

- 사태 초기 「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」를 신속히 개최(11.7)하여 해외물량 확보, 재정·세제지원 등 대응방향을 조기 확정
  -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고, 환경부·산업통상자원부·외교부·국토교통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요소수 합동대응단 구성
    - 매일 TF회의를 개최하여 12.7일까지 총 27차례 진행
- 기업과 협력하여 요소·요소수의 수입부터 생산·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

#### □ 매점매석금지고시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신속히 제정하여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원활한 요소수 공급을 지원했습니다.

- 매점매석 등 교란행위로 인해 수급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매점매석 금지조치 시행 및 단속 개시
- 생산·유통과정을 신고하고 요소수 판매처를 한정하는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빠르게 제정(통상 제정기간 3주 → 1주로 단축)

##### <매점매석금지고시, 11.8>

- ▶ 요소·요소수를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%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금지
- ▶ 시행 즉시 환경부·공정위·국세청·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 개시

##### <요소·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, 11.11>

- ▶ 구입·판매·재고량 등 신고의무 부여
- ▶ 요소·요소수 생산·출고·판매 조정명령\* 근거 마련
  - \* 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, 차량 1대당 구매가능량 제한 등 조정명령 발동(11.11)
- ▶ 요소수 수출 금지

#### □ 할당관세 시행(5~6.5→0%, 11.12~), 신속통관 지원 등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지체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.

## 2. “효율적인” 생산활동을 지원해 요소수 공급을 최대한 늘렸습니다.

□ 요소재고가 여유있는 업체에서 재고가 부족한 업체로 배분하여 요소수 공급을 지속하였습니다.

○ 요소 부족사태 초기에 수입업체에서 보관중이던 요소재고 (1,750톤)를 재고가 부족한 제조업체로 배분하여 요소수 생산에 즉시 활용

○ 산업용으로 수입된 N사의 요소중 차량용으로 사용가능한 물량(1,470톤)은 재고가 부족한 제조업체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활한 생산 유지

→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던 업체는 생산 재가동

+ 요소 수입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업체도 재고 여유 확보

□ 품질기준을 지키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.

○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으로 수입된 양질의 요소의 경우, 차량용 요소의 품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

- 향후 수입되는 산업용 요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속 수행하여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가능성을 계속 확인

○ 양질의 차량용 요소와 산업용 요소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요소수 생산방안 마련

○ 업체들이 산업용 요소를 정제한 후 차량용으로 활용 지원

### 3.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소수의 “원활한” 유통을 지원하였습니다.

#### ☐ 가용한 요소수는 버스, 구급차, 우체국 차량 등 긴급한 수요처에 우선적으로 전달했습니다.

- 수입업체의 재고(700톤)를 활용하여 생산한 요소수 중 20만 리터를 버스·청소차 등에 우선 배정
- 군 비축물량 20만리터를 주요 항만 주유소 및 화물차에 배정
- 호주에서 긴급히 들여온 요소수 27,000리터를 지역 민간 구급차(5,000리터)와 우체국 차량(22,000리터)에 지원
- 밀수 적발물량 10,000리터를 농어촌버스, 의료폐기물 수거차, 제설 및 도로관리 차량에 각각 2,000리터씩 배분할 계획

#### ☐ 중점유통 주유소를 지정하여 재고정보를 공개하고 요소수 물량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물류 중단을 예방하였습니다.

- 매점매석 등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물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화물차 수요가 많은 곳 중심으로 중점유통 주유소 100개 지정
  - 민자도로, 권역별 거점 주유소를 추가하여 136개소까지 확대
-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점유통 주유소 재고정보를 매일 2차례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 공급
  - 안정적인 생산이 지속되면서 중점유통 외 주유소로 공급 되는 물량을 점차 확대

#### ☐ 요소수 재고가 있는 주유소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
- 요소수 생산이 원활해지고 중점유통 외 주유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정보공개 대상 주유소를 136개에서 12.6(월) 243개로 확대
- 네이버·티맵·카카오맵을 통해 주변 주유소의 재고 및 가격을 3시간 간격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

#### 4. 민·관이 긴밀히 협력하여

“충분한” 해외 요소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습니다.

□ 중국과 이미 계약한 물량 18,700톤이  
조속히 국내로 반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.

-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既 계약 물량(18,700톤) 공급을  
재개하고 신속히 반입될 수 있도록 지원
  - 중국과의 기계약체결 물량(18,700톤)의 수출절차 진행 확인(11.10)  
다양한 정부 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의 협의 진행
  - \* 중국 기계약체결 물량 18,700톤중 16,800톤 수출전 검사 완료
- 운송선사가 결정된 경우 요소수입 선박의 국내 항만 입항시  
선석 우선배정, 신속 하역 등을 통해 입항·하역 시간 최소화
  - 중국항만 적체로 수입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체선박  
투입을 통해 신속한 수입 지원

□ 다양한 국가로부터 요소 및 요소수를 확보하여  
수입선 다변화를 이루었습니다.

- 현지 공관과 코트라를 통해 베트남, 사우디 등으로부터의  
요소 수입 협력을 지원
- 인도네시아와 요소 수급 관련 국가 간 MOU를 체결하고  
베트남 등과도 정부 간 협력 추진중
- 국내 요소 수요·생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요소 얼라이언스를  
구성하여 민간의 협상 지원 추진

#### 향후 차량용 요소 도입계획(잠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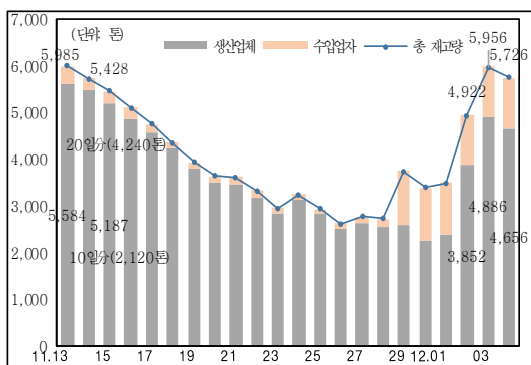
(단위: 톤)	11월	12월	1월	2월 이후	합계
합계	1,158	18,800	13,704	14,720	48,382 (7.6개월분)

### Ⅲ. 시장에 나타난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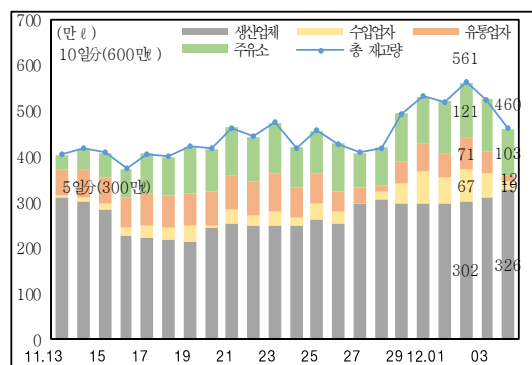
#### □ 요소 및 요소수 재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.

- 꾸준히 줄어들던 요소재고가 해외 요소 도입이 확대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5,000톤 후반을 회복
- 요소수 생산이 증가하고 해외 요소수 수입이 늘어나면서 요소수 재고도 예전보다 확대

요소 재고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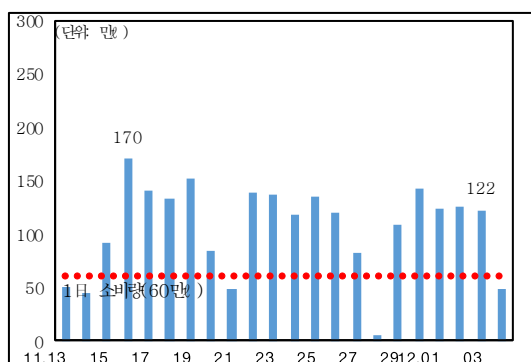
요소수 재고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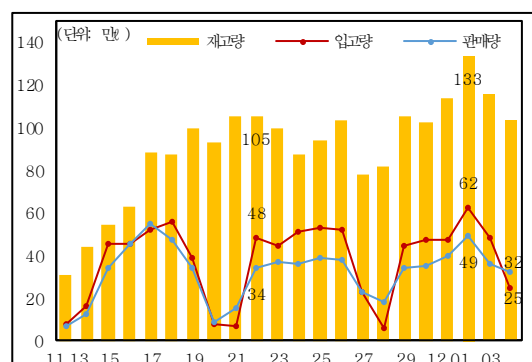
#### □ 평균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요소수가 생산되어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.

- 주말을 제외한 요소수 생산은 1일 소비량의 두 배 수준인 120만 리터 내외를 지속
  - 최근 증가한 요소 재고를 바탕으로 생산량은 당분간 더욱 늘어날 전망
- 주유소 입고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고, 최근 주유소 판매는 11월 3주보다 다소 낮아진 모습

전체 요소수 생산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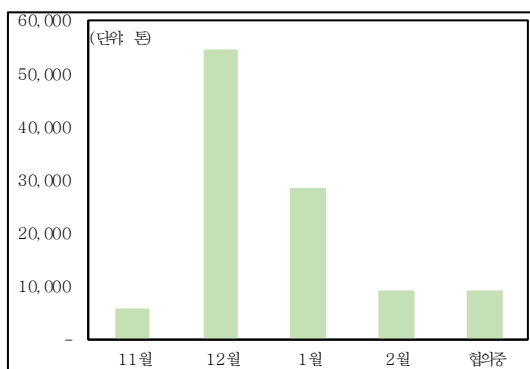
전체 주유소 재고량, 판매량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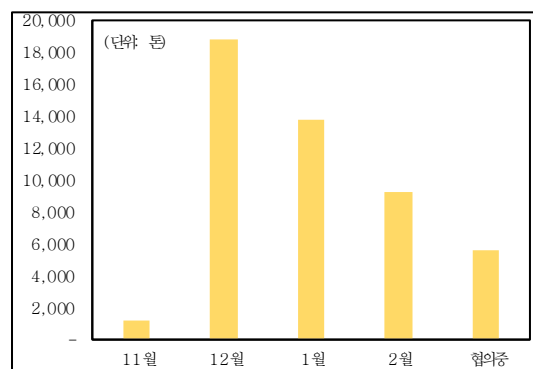
□ 향후 6개월 이상 수급에 문제가 없을만한 물량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.

- 중국과 기계약된 물량(18,700톤)은 대부분 수출 검사를 마치고 국내에 차례대로 들어올 예정
- 그동안의 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베트남, 사우디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요소가 수입될 전망

전체 요소 도입실적 및 계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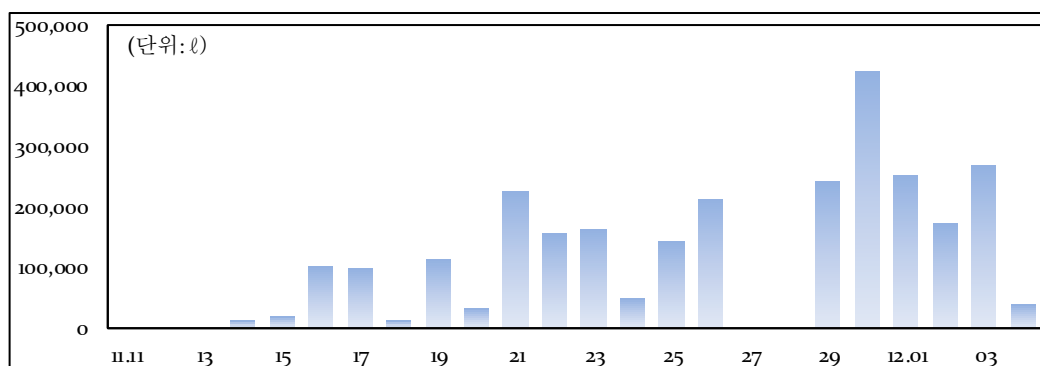
차량용 요소 도입실적 및 계획



□ 해외 요소수 수입물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- 11월 3주 이후 요소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며, 일평균 11만L 수준의 물량이 유입중
- 수입물량이 꾸준히 반입되며 현재 약 700만L의 재고 축적

해외요소수 수입량 추이





## IV. 원활한 시장유통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

□ 요소수 재고정보 공개를 꾸준히 확대하고 질서 있는 시장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재고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매일매일 정보공개 대상 주유소 (12.6일 현재 243개)를 확대하여 총 2,000여개 이상 공개할 계획
  - 현재는 주유소 재고정보를 3시간마다 공개하고 있으며, 앞으로 오픈넷과 연계하여 앱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정보 등을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('22년 초 목표)
- 최근 증가한 수입 요소수의 원활한 시장유통을 위해 온라인 쇼핑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를 12.8일부터 허용
  - 마트를 통한 수입 요소수 판매, 국내 생산 요소수의 온라인 및 마트 판매 등으로 판매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

□ 국내외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앞으로 수급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- 정부는 중장기 수급 불안요인에 대해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원재료 해외수입 및 국내 생산·유통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
  - 관계부처 및 업체들과 구축된 긴밀한 협조체제와 이번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수급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
- 당분간 매점매석 단속을 지속하면서 시장이 조속히 안정화 되도록 유도
- 원활한 요소수입을 위해 주요국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, 관련 업체들이 수입요소 얼라인스를 구성하여 구매처 다변화 및 리스크 요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
- 재고비축 확대, 기술개발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계획

**□ 공급망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른 품목에서도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.**

- 최근 요소수 사태 등을 계기로 정부는 공급망 전반을 살펴보면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품목 4,000여개를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(EWS)을 가동
  - 재외공관 및 해외무역관 · 산업부 · 관련협회 · 수입업체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농식품 · 수산업 · 의약품 · ICT · 산림 등 분야별 공급망 점검 체계도 본격 운영
- EWS 대상품목중 연내에 100~200대 품목을 ‘경제안보 핵심 품목’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
- 20대 우선관리품목의 경우 비축확대, 국내생산 기반확충,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 방안을 연내 마련

**□ 조속한 요소수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**

- 향후 6개월간 소비 가능한 물량의 요소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, 요소수 생산 · 유통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
- 기업의 사태 조기극복 의지와 빈틈없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조속한 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
- 어려운 와중에 배려와 자제의 미덕을 바탕으로 요소수 시장 안정화에 적극 협력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